



樂水樂山

崔 錫 采

젊었을때는 論語雍也篇에 있는 「知者樂水 仁者樂山」을 半知半解했던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느니라」고 書堂의 訓長께서 간단히 풀이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意識속에서 자라났기에 차차 커가면서 「나는 산을 좋아 하나, 물을 좋아 하나」하고 自問自答할때가 더러있었다.

아주 어릴적에는 非山非野라 할만한 故郷에서 자랐으므로, 山이고 江이고, 이렇다하게 情이 들만한 追憶은 없다.

思春期-性格形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中學時節을 바닷가에서 보낸탓인지 바다물은 어쩐지 感動의 胎盤처럼 지금도 나의 가슴속에 출렁인다.

아뽀사! 나는 知者は 될수 있을지언정 仁者は 아니구나 싶어 스스로 失望한 적도 있었다. 그럴수록 외고 집으로 山과는 멀어지고 바다로 向하는 그리움이 더해지기도 했다.

아침저녁으로 출렁이는 바다. 멀리 水平線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는 運命을 타고나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글이 제대로 안쓰여져거나 俗塵에 시름이 건히지 않을 때는, 無理를 해서라도 벗과 더불어 仁川까지 달려가 하루밤 바닷물소리를 들으면서 지새우곤 했다.

그러면 스프르 속이 풀리는 性格이었으니 생각해보면 「樂水」-邊倒인 셈이다. 물론 「樂水」이긴하되, 「知者」의 발밑에도 못들어가는 半風水의 신세타령이긴 하지만.....

그런데 「知者樂水 仁者樂山」해석을 速斷했다는것을 나에게 깨우쳐준것은 다름아닌 鷺山 李殷相선생이다. 지금은 이미 故人이 됐지만 十여년전의 어느때인가 같이 江陵을 여행한적이 있었다. 아침일찍 海邊을 거닐면서 문득 생각이나, 평소의 疑念을 제기해 본 것이다.

「왜 知者は 樂水만하고, 仁者は 樂山만 하는겁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있어. 知者仁者 다 樂水하고 樂山하는 거야」

「그래도 論語는 딱 끊어지게 갈라놓았던데요」

「그건 漢文文章의 리듬이지. 知者は 仁者고 仁者は 知者거든, 水나 山이나 大自然을 말하는거고, 水는 動의 極致요, 山은 不動의 極致를 의미하는지라 陰과 陽, 動과 不動이란, 大自然의 攝理를 깨닫는 것이 知요, 그 知를 行하는것이 仁이니 仁과 知는 하나지 둘이 아닌것이야.....」

과연 당대의 博學다운 해석이다. 書堂訓長의 기계적인 풀이만 듣고 50여년 곧이 고식하게 「樂水」에 집착했던 마음속의 안개가 싹 가시게 된 것같은 느낌이였다.

하지만 때가 늦었다. 「樂山」도 해보고싶어 登山에 취미를 붙이고자 몇번 덤벼보았지만 그때마다 고된 行脚에 지쳐버리고 아픈다리만 매만지면서 숨이차 헐떡거리는 心臟을 달랠수밖에 없어졌으니 그야말로 晚時之嘆이다. 할 수 없이 멀리서 눈으로만 「樂山」하고 「仁」은 마음으로 때워버리기 일쑤다.

곰곰 생각해보면 「樂水」도 그실 마음뿐이었지 게으름뱅이 「樂水樂山」임에는 마찬가지로였잖나 싶어 쓴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旅行은 좋아해서 이곳저곳 다녀보긴 하지만 언제나 눈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樂水樂山」이지 그「물」의 動을 추적하거나, 그 「不動」의 山에 情을 담고 파고드는 境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未熟을 탄한것이 한두번이아니다.

하긴 「樂水樂山」을 「요수요산」이라고 읽을줄 모르고 「낙수낙산」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뇌카리는 世代에 비하면 知쪽이 조금은 나올지 모른다고 自慰겸 自虐도 한다.

진짜 「樂水樂山」이 되게 大自然을 아릅드리 가꾸는 일과 함께 묵사사람들의 心田을 잘 다듬어나가는 知者의 道 仁者의 道 역시 오늘의 既成世代가 짊어진 課題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어진다.

[法博·本會理事·韓國新聞編輯人協會顧問]